***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

**12/19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계 1:6**
**6**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롬 5:10, 17**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

**롬 5:21**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3:2**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빌 3:13**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벧전 2:5, 9**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예표의 대부분은 왕들에 관한 것이다. 왕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며 최고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땅이라는 근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 … 좋은 땅을 최고 수준에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들이었다. 이러한 왕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의 예표이다.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믿는 이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벧전 2:9, 계 1:6, 5:10, 딤후 2:12).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권,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2장, 112-113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분의 대표 권위로 말하는 부분뿐 아니라 다스리는 부분도 맡기셨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말하는 이들이었고 또한 왕들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하는 왕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다만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다스리심을 위한 일종의 대표 권위였다(출 28:30, 레 8:8).

신약에서 모든 믿는 이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신자들이 되도록 구원받았다.

우리는 ...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요소이신 하나님으로 변화됨으로써 그러한 왕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었지만 타락하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요소로 변화되어 하나님-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부활 안에 있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옛것을 부인함으로써 새것이 되고 새로움의 요소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새로움은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이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후 5:17, 갈 6:15). 이 새 창조물은 하나님으로 재창조되고 거듭나며 변화된 사람들이다. 이것은 또한 각 지방에서는 교회이고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표의 시대에 이기는 이들은 신언자들이었다. 신언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돌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신탁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수많은 왕이 신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 따라서 모든 참된 신언자들은 이기는 이들이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다. 이 책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는'이라는 말씀을 일곱 번 반복하셨다(계 2:7, 11, 17, 26, 3:5, 12, 21).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예표인 신언자들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신언하는 것을 강조하고 높인다(고전 14:1, 3–6, 24, 31, 39) 신언은 우리를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말해 넣는 것이 신언하는 것이다. 신언은 이기는 이들의 기능이다.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들이다 (롬 5:17).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권,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2장, 113-115쪽, 1장, 104-105, 108쪽)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실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5장, 221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임, 4-5장*

**12/20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19:7**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

**갈 3:7, 29**
**7**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민 6:24-27**
**24**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25**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7**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성경은 사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제삼자인 사탄이 있다. 사탄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그 모든 문제는 혼돈이다. 주님께는 특별한 한 무리의 사람들인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신데,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모든 파괴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주님의 유일한 건설적인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이들이다.

(옛 창조에서의 사탄적인 혼란과 새 창조를 위한신성한 경륜, 3장, 73쪽)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처음 11장 전반부까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 족속으로 대하고 계셨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로 전환하셨다. … 이러한 또 다른 한무리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아담 족속에게서 아브라함 족속에게로 전환하셨다. … 구약은 아담 족속과 아브라함의 육체에 속한 후손들을 다룬다.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무리의 사람들에게로 중대하고도 긴요한 전환을 가지셨다. 그분은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로 전환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의 인종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다 (갈 3:7, 29).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실 수 있겠는가?...

성경의 마지막 책의 시작에서 금등잔대들 가운데 거니시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은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인 이기는 이들을 부르신다. "이기는 이에게는”(계 2:7, 11,17, 26, 3:5, 12, 21). 이것은 우리, 곧 그분의 믿는 이들이며 우리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향한 칠중(七重)의 부르심이다. … 이기는 이들은 네 번째 족속이다.

신약 시대의 역사는 이천 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담 족속을 위해 이천 년이 있었고,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 족속을 위해 이천 년이 있었으며,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 족속을 위해 거의 이천 년이 있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은 모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이들 족속이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이들에 대한 책이다. 이기는 족속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온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신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에 이르는, 곧 보좌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에 이르는 성경의 마지막 열아홉 장에 있는 이기는 족속에 속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이 땅에는 오직 네 족속, 곧 아담 족속,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 족속,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 족속, 이기는 이들 족속만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이들 속에 속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이들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요 14:6), 그리스도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기는 이들에게 그들이 그분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길이 없지만, 오늘날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길이 없다.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길이다. (옛 창조에서의 사탄적인 혼란과 새 창조를 위한 신성한 경륜, 3장,73-75, 83)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구원, 7장: 이기는 자들, 1, 6장*

**12/****2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막 4:26-29**
**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27**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 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낟알입니다.
**29**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수확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

**눅 17:21**
**21**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3:6-7**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계 14:4b-5**
**4**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

노예-구주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요일3:9, 벧전 1:23)가 가리키는 것은, 노예-구주의 복음의 결과요 목표인 하나님의 왕국과 이 시대의 교회(롬 14:17)가 사람의 지혜와 재능을 통하여 만들어진 생명 없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여 수확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다. (막4:26 각주 3)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사람의 존재 안으로 뿌려져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르침이나 활동이나 조직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왕국은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뿌려지시어 이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서 왕국으로 자라시고 발전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15장, 145146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의 가르침 전체의 내재적인 요소는 …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시고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신 것이다.

사복음서는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을 계시한다. 마침내 이 하나님-사람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뿌리시려고 나아오셨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왕국의 씨와 유전자를 받아 들였다. 이 씨, 이 유전자는 육체 되신 하나님, 곧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다. 복음서들에는 이러한 왕국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씨 뿌림이 번식하고 확산하는 것이 있다. ・・・ 사도행전에서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씨 뿌리는 사람들이 일으켜졌다. 씨 뿌리는 이 모든 이들은 씨와 유전자를 받아들인 이들이었다. 그들은 씨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씨를 다른 이들 안으로 뿌릴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씨와 씨 뿌림이 번식한다.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가 자라는 것을 본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같은 장 다른 곳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6절)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씨가 자라고 발전하는 것이 있다.

이 씨의 수확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르면, 먼저는 첫 열매가 있고, 그런 다음에 곡식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에 대해 말한다. 그다음에 15절에서 우리는 '땅의 곡식이 익은 것'을 본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로 언급된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될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천 년의 기간 동안 있을 천년왕국은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일 것이다. 천년왕국 동안, 왕국의 유전자를 받아들인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는 왕들일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왕들의 구성체일 것이고, 이 왕들은 완전히 회복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 곧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복음서들에서 뿌리신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것인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실 것이다.

복음서들 안에 뿌려진 왕국의 유전자는 얼마나 놀라운가! 결국 이 유전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왕국의 유전자와 발전에 대한 이러한 그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15장, 146-149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14-16장*

**12/22 목요일**

***아침의 누림***

**신 17:18, 20**
**18**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책에 베껴 써서,
**20**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않고, 그가 계명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오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

**요 15:9-11**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0**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사람이셨던 주 예수님은 ...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계셨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타고난 인성을 거절하셨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제한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셨다. 그분은 실지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계심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으로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6장, 227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위해 교회생활을 하는 본을 세웠다(롬 15:1416:27).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15:14-24). 그런 다음 바울은 이방인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사랑 안에서 물질을 드린 것을 통하여, 그들을 유대인들의 교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끌었다(25-33절).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에서 추천하고 문안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우주적인 교통 안에 있는 이 몸의 실지적인 생활을 위해, 그의 사역 아래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함께 섞고 있었다. 오늘날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모든 믿는 이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규제받고 제한받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6장, 228-229쪽)

왕은 자신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있는 율법을 책에 베껴 써야 했다 (신 17:18).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합당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 받고 통제 받는 사람이었다.

이 원칙은 오늘날 교회들 안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결정과 함께하실 것이며, 장로들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교회의 사무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관리가 신정(神政)이다.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17장, 142-143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될 신성하게 조성된 백성을 얻으시는 것이었다. 재조성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곧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분께 돌아와야 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증거인 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음으로써 말씀으로 적셔지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이다(요 6:63 엡 6:17). 우리가 날마다 신성한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그 영은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신다. (느 8:1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17장, 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5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4장*

**12/23 금요일**

***아침의 누림***

**창 45:5**
**5** 이제는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창 50:20**
**20**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롬 8:28**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벧전 3:8-9**
**8**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9**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 4:4-5**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롬 14:17-18**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8**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

 그 영의 통치는 그 영에 대한 가르침의 구조에서 머리 돌이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5장, 1555)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형들을 탓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교 창45:28 각주 1).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였다(창 45:5-8, 50:15-21).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의 영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창45:5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요셉의 두 가지 꿈(창37:7-9)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따르면 사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따르면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이다(비교 민 23:21, 왕상 19:18, 계 12:1과 각주 1). 다스리는 방면의 성숙한 생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판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며 감상한다. 요셉의 꿈은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였다(비교 행 26:19). (창 37:5 각주 1)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생명은 … 부활 생명이자 하나님의 생명이다. 요셉은 흥분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흐트러졌다는 표시가 없었다. 이것이 생명이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생명을 볼 뿐 아니라 생명의 길, 곧 우리 자신을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본다. 요셉이 인간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에게서 성숙한 생명을 볼 뿐 아니라 다스리는 생명과 이 다스리는 생명의 길을 본다. 우리 모두에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생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러한 길 곧 성숙한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이 필요하다. 이 생명은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그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흥분된 가운데서도 이 생명은 잠잠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요셉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요셉만큼 마음이 상하고도 복수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당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당신에게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용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것은 전혀 용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때, 형제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자책하지 말고 자신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고 말했다. 요셉은 형제들이 한 일 때문에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조력자들로 여겼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도록 하나님을 도왔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달콤한가!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안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었다. 요셉은 신약에 계시된 것의 생생한 예시이다. 요셉은 자신을 위한 유익이나 자신을 위한 누림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을 위한 야심이나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한 것은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였다. 자신을 부인한 요셉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왕국이 도래하며 실현되고 실행된다. 이러한 성취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왕국의 누림에 참여하게 되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6장, 1565쪽, 119장, 1601, 1605, 1608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2-116, 118-120장*

**12/24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2.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3. ---
4. **엡 1:3-5**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5. **엡 3:17-21**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지적인 몸의 생활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5장, 221쪽)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반복해서 사용된다(1:4, 3:17, 4:2, 15-16, 5:2).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생명의 성장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가 고봉의 진리에 관해 말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을까 봐 염려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고 건축되지 않은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8장, 165-166쪽)

***오늘의 읽을 말씀***

원천이 샘솟아 오를 때, 이것은 원천의 나타남이다(요 4:14). 그런 다음 강이 흐른다.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강이시다.

이렇게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다(요 4:14). '~에 이른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풍성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에 이른다’는 것은 목적지를 말한다.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입니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신성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흐르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해석하는 데에는 온 성경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근원인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흐르는 강이시고, 이러한 흐름이 영원한 생명 곧 새 예루살렘을 산출한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결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의 총체이다.

결국 삼일 하나님은 생수가 되시며,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셨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야곱의 꿈은 신성하고 비밀하다.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참된 원천이 있다. 이 원천은 아버지이다. 이 원천이 나타나고 샘솟아 오를 때, 이것은 아들이다. 샘이 강으로 흐를 때, 이것은 그 영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며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한다. 요한복음의 처음 네 장은 흐르는 물이신 삼일 하나님을 제시한다. 6장과 7장에는 두 명절이 있다. 이 두 명절은 흐름의 산물이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프다. 명절 곧 잔치에는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마실 것이 있다. 음식은 그리스도이고, 물 또한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된다. 이 원천은 샘으로 나타나고, 이 샘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 강으로 흘러나온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이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말씀하심이고 신성한 확산이며 신성한 분배이다. 원천이신 아버지, 샘이신 아들, 강이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신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실 때 우리와 함께 흐르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흘러가게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에 이른다'는 또한 '이 되다'를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를 의미한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4장, 186, 188-19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8장, 생명의 체험(하), 17장*

**12/25 주일**

***아침의 누림***

1. **고전 12:31**
**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2. **고전 13:1-8, 13**
**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2**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3. **2022. 12. 19 ~ 2022. 12. 23***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2장*

**추가로 읽을 말씀***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임, 4-5장*

1. **찬송: 941 (英)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인  (中:745)**

**1**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인 왕국은
그 질서 건축하는 주권의 다스림
주 하나님의 왕권 행사되는 왕국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2**왕국의 중심 보좌 하나님 좌정해
그 마음 갈망 따라 모든 것 다스려
왕이신 하나님이 머리와 주 되니
다 자기 위치에서 제 궤도 지키네.

**3**하나님 다스려서 그분 뜻 행사해
그 권위 아래 주 뜻 이루어가시네
보좌로부터 주의 생명 강 흘러가
하나님 왕국 안에 축복 넘치도다.

**4**그 통치 아래에서 축복을 받도다
그 주권 거스림이 죄악의 뿌리니
늘 주의 보좌 엎는 사탄 물리치고
하나님 권위 아래 살기만 원하네.

**5**하나님 왕국 안에 주 확대되겠네
주 생명의 다스림 하나님 자랑 돼
주 통치 실시할 때 다 축복 받으리
주 하나님의 영광 다 나타나겠네.

**6**때 차면 주 안에서 만물이 하나 돼
주 왕권 인정하고 그 통치 받으리
생명의 통치 먼저 교회가 맛볼 때
만물도 그 누림을 고대하고 원해.